13-8월 건축가9인 (73-121) 2013.7.28 10:15 AM 페이지 106

거호 CMYK

나는 꿈 읽기를 자처한다. 누군가의 꿈을 읽는 일이 내가 하는 작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희미하게 퇴색한 그 꿈들을 건져 올려 집 속에 생생하게 담는 것은 건축가에게 커다란 희열이다.

13-8월 건 축 가9인 (73-121) 2013.7.28 10:15 AM 페이지 107

거호 CMYK

홍진희 Hong Jin Hee

건축사사무소 스무숲 대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주거학) 및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공부했다. 작은 집, 전문가를 위한 소규모 스튜디오 공간, 1~2인 가구를 위한 싱글즈하우스 및 코하우징을 설계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저층형 집합주택을 특화시켜 디자인하고 있다.

About Timber Structure

1. 소규모 또는 레벨이 다양한 공간을 가구처럼 다채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 공간에 풍부한 표정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은 건축주로 하여금 '집의 실현' 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2. 개인의 섬세한 요구와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이 시대에 목조주택이 하나의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조주택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동시에 주거 공간에 대한 트렌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도시건축에서도 친환경적인 답이 필요한 곳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참여와 연구가 있고, 또 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4. 한국의 경량목구조 주택은 계절의 변화, 즉 기온의 편차가 크고 집중되는 강수량과 강한 일조, 그리고 추운 겨울철 난방과 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적 상황과 기후에 맞는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방수, 결로, 환기 및 화재에 대비한 목구조 전문가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목구조 주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아울러 기성건축가의 목조건축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디자이너의 폭넓은 참여는 목조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화 월곳리 | 사진 변종석

홍천 장전평리 주택 | 사진 우드플래닛

6. 70년 내외로 보며 유지관리에 따라 100년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목구조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한 설계 및 철저한 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확한 시공과 사용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를 능가할 수 있는 지속력이 있다고 본다.

7. 여름철에는 우기가 있고, 겨울철에는 지나친 난방으로 인해 내부에서 습기가 발생한다. 이는 목구조를 시공하면서 항상 해결해야 하는 매일의 숙제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벤트 공간 구성과 겨울철 환기를 고려한 폐열회수장치, 물을 바깥으로 배출해 내는 디자인과 철저한 방수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차음, 방수, 결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조재를 검토하고 있다. 목구조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하이브리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이브리드는 비용 및 기타 수반되는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8. 나는 나무 집이라는 느낌에 접근하기 위해 현관 및 외장의 주요 매스를 목재로 마감하고 있으며, 내부는 계단, 가구, 일부 벽면에 전체 예산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목재로 마감하고 있다. 또 단열 및 각종 설비를 필수로 하지 않는 공간은 순수 목재로 마감하고 있으며, 실제 푸른 나무들을 건축적 요소의 하나로 설계하고 있다. 숲과 집이 하나가 되는 집이 진정한 나무 집의 완성이라고 본다.

9. 목재의 단열 성능은 콘크리트의 4배, 벽돌의 6배, 석재의 15배 정도로 우수하며 벽이 얇기 때문에 내부면적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목재는 자연적으로 습도조절능력을 지니고 있어 기타 구조에 비해 쾌적성이 탁월하다.

About Timber

1. 외장재는 수치안정성이 뛰어나고 빈티지한 느낌의 세콰이어를 가장 좋아하고, 최근에는 습기에 강한 일본산 삼나무(오비스기)를 즐겨 사용한다. 내장재로는 향이 좋은 삼나무류와 밝은 화이트톤의 루마니아 애쉬, 화이트오크, 그리고 가격 면에서 우월한 하이그래드를 즐겨 사용한다.

2. 백문백견이 불여일용(用). 거침없이 직접 써보는 것과 늘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발품이 필요하다. 자문과 조언은 사무실에서 샘플을 받아 진행하는 대신 직접 목재상에 가서 도움을 구한다. 최근에는 목재 전문잡지인 우드플래닛 기사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3. 유림목재, 동신종합목재 등이다. 유림목재는 숙성과 가공을 거쳐 나무의 품질이 균등하고 우수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주문과 발주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목재회사이다. 동신종합목재에서는 목재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들을 수 있고 디자인에 적합한 나무를 많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재와 다양한 목재 가공품을 만날 수 있다.

강화 월곳리 | 사진 변종석

About Communication

1. How is your dream? 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2. 집을 많이 아껴줄 수 있는 건축주.
3. 요즘 건축주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집을 짓는다. 그래서인지 집은 더욱 작아지고 예산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세부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4. 예전에는 건축주들의 말에 '알아서', '잘', '저렴하게' 등의 수식어가 주로 붙곤 했다. 최근 2~3년간 같이 작업한 건축주들은 요구 사항이 분명하고, 기말 보고서처럼 자신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낸다. 건축주의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고 건축가 입장에서도 밤을 밝혀야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철저하고 투명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bout Design

1. 집이 지어질 땅과 그곳에서 거주할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다. 대지에 대한 이해, 건축주와 나누는 깊은 공감이 없는 설계란 내게 불가능하다.
2. 건축 설계사무소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건축가, 집이 완공될 때까지 좋은 선택과 해결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건축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집짓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3. 30평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00만 원 이상이다. 적정 가격은 600~700만 원. 하지만 마침표를 찍기가 많이 주저되는 질문이다.

About Architect

1. 삶의 소박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절제된 '텅 빈 충만' 이 있는 집. 그리고 작은 숲이 있는 집.
2. '별도로 해설이 필요하지 않은' 쉽게 읽히는 집. '좋다' 라는 느낌이 쏙 다가오는 집. 참고로 나는 집을 지을 때 공사 현장을 중시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답이 항상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계디자인의 10%는 현장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완성시킨다.
3. 강화 '세로집'. 목구조와 만난 첫 경험이었고, 예산의 제한과 목구조라는 특수성으로 "왜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열 번 이상의 디자인 수정이 있었던 집이다. 경제적이고 쉽게 다가설 수 있었던 목구조의 장점을, 동시에 디자인의 한계를 단시간에 깨닫게 한 작업이었다.
4. 영혼의 평온함을 강조한 루이스 바라간, 주거건축가의 따스한 마음을 강조한 나카무라 요시후미, 그리고 숲.